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 2021. 12. 28.(화) / 총 6매(본문4, 참고2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	담당자 ·과장 나진항, 사무관 곽상훈, 박유준, 주무관 손달현 ·☎ (044) 201-4302, 4199, 4198		
	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항공모빌리티 선행연구담당	담당자 ·책임연구원 정기훈, 전용민, 오경륜, 이장호, 송근웅 ·☎ (042) 860-2283, 2031, 2825, 2296, 2196		
	항공안전기술원 UAM안전지원센터	담당자 ·센터장 전승목, 선임연구원 윤범수, 이승근 ·☎ (031) 727-5815, 5818, 5820	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2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8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도심항공교통(UAM), 비행실증 통해 더 안전하게! 더 적합하게!

- 팀 코리아(Team Korea) 10개 기관 추가...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, 이하 국토부)가 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 팀 코리아(이하 Team Korea)의 진용을 강화^(참고2)하고, 도심항공교통(UAM)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.
- 국토부는 12월 28일(화), 도심항공교통 분야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‘UAM Team Korea* 제3회 본 협의체’를 개최하고, ①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 및 ②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등을 논의**했다고 밝혔다.
 - * 산·학·연·관 37개 기관이 함께하는 정책공동체로 K-UAM 로드맵을 공동 이행하며, 주요 정책을 공유·논의·보완/수정하고 UAM 관련 국내외 이슈 및 동향을 지속 분석
 - ** (그 외) ③버티포트 실무분과 활동성과 및 계획, ④’21년 UAM 팀코리아 추진경과, ⑤’22년 UAM 팀코리아 운영방안 등 총 5건 논의

< UAM Team Korea 제3회 본 협의체 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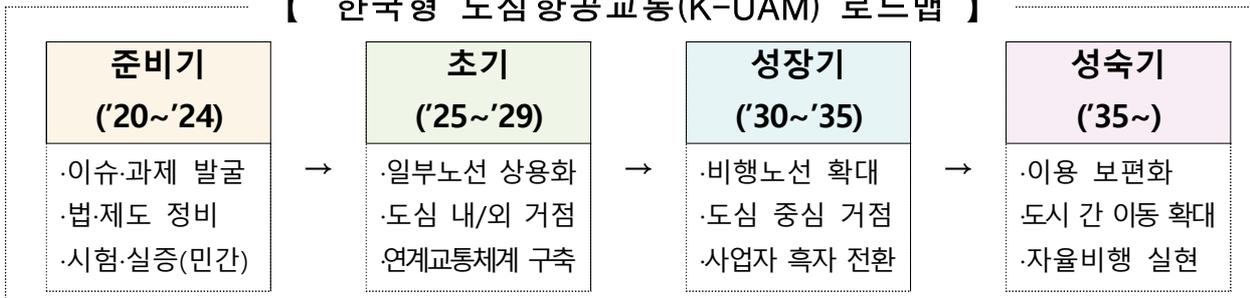
- (시간/장소) '21.12.28.(화) 14:00~15:00 / 온라인
- (참석) ▪ 국토부(제2차관 주재, UAM Team Korea 위원장), 국방부, 중기부 등 중앙부처
 - 업계 : 현대차, 한화시스템, SKT, 대한항공,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(DMI) 등
 - 학계 : 항공대, 서울대, KAIST, 인하대, 건국대, 한서대 등
 - 지자체 : 서울·인천·부산·대구·광주·제주 등
 - 공공기관 : 항공우주연구원, 항공안전기술원, 교통연구원, 전자통신연구원, 건설기술연구원,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, 한국교통안전공단, LH, LX 등

- Team Korea는 UAM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(K-UAM) 로드맵과 기술로드맵 수립('20.6, '21.3.), 운용개념서 발간('21.9.) 및 공항실증('21.11.) 등 그간의 성과와 연계하여,
 - UAM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안건① 한국형 그랜드챌린지(실증사업) 운용계획 】

- 상용화 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운용개념 및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-UAM 그랜드챌린지 운용계획(안)을 의결했다.
 - 국토부는 K-UAM 로드맵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'25년 UAM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하고, 제도 마련 및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.

【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로드맵 】



- 최초 상용화에 앞서 ①안전성 검증, ②적정 안전기준 마련, ③업계 시험·실증 지원 등을 위한 실증사업인 그랜드챌린지를 진행한다.

- ① (기체안전성 및 통합운용성 입증) UAM은 비행체, 교통관리, 기반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기존 항공교통과 다르며, 특히 안전은 시장을 열어나가는 핵심·필수가치이므로 신교통 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도 입증·체감 가능한 충분한 비행실증 필요
- ② (국내 운항기준/절차/자격요건 마련) 국내도시 교통·환경·생활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 기준(Concept of Operations) 마련을 위해 기상·통신·소음 등을 실제 환경에서 실증 필요
- ③ (민간기업시험·실증지원) 후발주자인 국내 업계가 조기 선두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연구 개발단계부터 실제 운용단계까지 다양한 실증시험 지원 필요

- **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**(’23년)은 **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**(개활지(앞이 넓고 크게 트인 땅), 전남 고흥군)에서 **사전시험***을 통한 **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, K-UAM 교통체계 통합운용 실증**으로 진행된다.

* 특정 UAM 항공기(또는 UAS(Unmanned Aircraft System 기체)를 이용한 실증프로그램 운용

- **2단계 실증**(’24년)은 ‘25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**공항과 준도심·도심을 연결하는 UAM 전용 하늘길에서 상용화에 준하는 시험비행**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【 K-UAM 그랜드 챌린지 단계적 실증 계획 】



- 국토부는 **그랜드챌린지 1단계 테스트베드**(’22~’23)로 **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**을 선정(’20.12.)하고, 이착륙장 및 시험측정장비 설계 등 **실증인프라 구축**(’21.4.)에 착수했다.

- K-UAM 운용개념 실증을 위한 **시나리오, 실증범위, 추진일정** 및 **참여 자격** 등 **세부 추진계획**을 포함한 **운용계획(안)**도 마련했다.

* 해외 실증프로그램과 동등 수준의 시나리오와 범위 설정 ☞ ①美 NASA AAM National Campaign, ②佛 Re.Invent Air Mobility Challenge, ③英 Future Flight Challenge 등

- 내년 초에는 **K-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**을 공식발표하고, ‘22년 참여기관 모집 및 실증대상방법 협의를 거쳐 **’23년 본격** 개시할 계획이다.

【 안건② UAM Team Korea 참여기관 확대 】

- 국내 UAM 산업생태계 구축과 서비스 실현을 도모하는 UAM Team Korea 협의체에 **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**했다.

- 이번에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되어, Team Korea는 UAM 민관협력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.

< UAM Team Korea 신규 참여 기관(10개) >

- (업계) KAI, LIG넥스원, KT, 현대건설 / ○(학계) 극동대학교
- (공공기관) 한국도로공사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/ ○(지자체) 경북, 울산, 충북

- 신규 참여 기관은 모빌리티서비스 제공, 인프라 구축 및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성과를 공유한다.

- 이를 통해 현재 활동 중인 37개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실현에 힘을 보태게 된다.

- Team Korea의 진용이 강화됨에 따라 그랜드챌린지 등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로드맵에 담긴 추진과제 이행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.

- 내년에 Team Korea는 UAM 특별법 제정, UAM 전용 하늘길 구축, 인프라 가이드라인 제시 등 UAM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UAM Team Korea 참여기관의 다각적인 협업과 지원으로 K-UAM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”면서,

- “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내년 초 K-UAM 그랜드챌린지 추진계획 최종 발표를 발판삼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실현을 구체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드론 교통담당관 곽상훈 사무관(☎ 044-201-4302), 박유준 사무관(☎ 044-201-4199), 손달현 주무관(☎ 044-201-41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

참고 1

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그랜드챌린지 개요

- (검증분야·방식) 비행체, 통신, 인터넷, 감시, 충전, 교통관리체계 등 유기적 시스템의 '정상-비정상-비상상황'별 안전수준 검증
 - 단순비행부터 운항대수, 인프라 결합, 비상상황 등 복잡도를 높여 가는 단계적 시나리오*를 설계하고 실제환경에서 테스트
 - *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해 미국도 FAA, NASA 및 산업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년간 운영개념 및 실증테스트 설계
- (소요 공간·설비) 사고 시 피해가 없을 넓은 공역·부지와 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레이더·통신장비 등 필요
 - 적정한 풍속·강우 등 자연환경 조건과 지자기장 간섭 및 레이더 주파수 중첩 등 방지를 위한 인위적 환경 조건도 중요
- (추진단계) 준비(0단계, '20~'21), 개활지 테스트(1단계, '22~'23), 수도권 실증노선 테스트(2단계, '24) 등 상용화('25)를 목표로 우선 준비
 - 이후 테스트 지역·시나리오·참여범위 등은 단계별 진행상황 및 국제동향을 보아가며 추가 실증 여부·방법 등 검토

[K-UAM 그랜드챌린지 추진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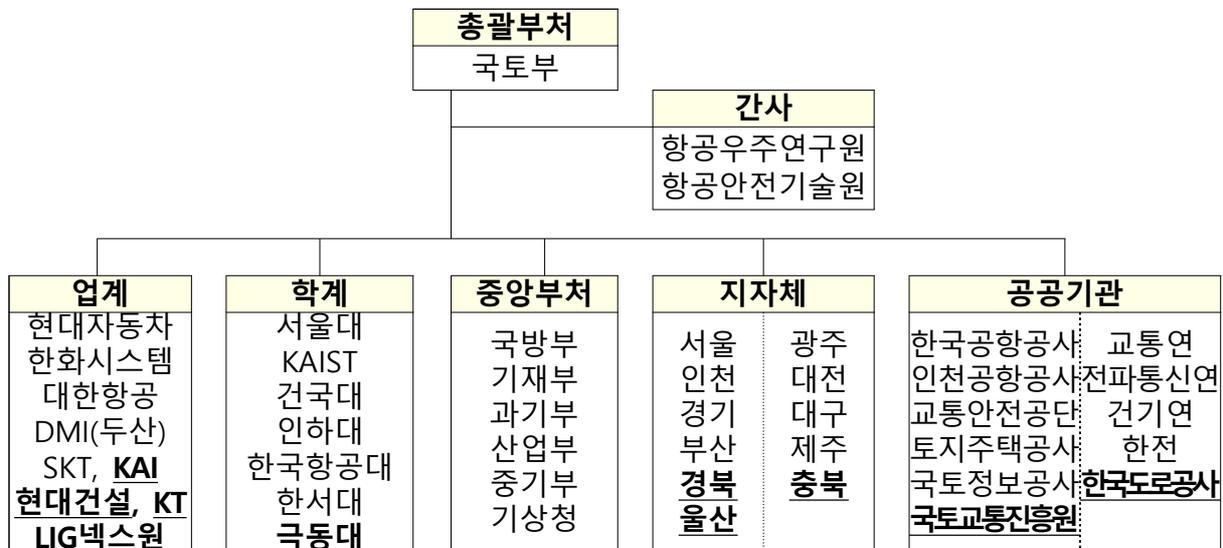


* ACO(Announcement Collaborative Opportunity) : 참여(협업) 기회 안내

참고 2

UAM Team Korea 개요

- (목적) K-UAM로드맵의 공동 이행, 신규과제의 발굴 및 주요시장·기술 동향 등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정책공동체로 출범
- (구성·개최) 국토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, 참여업체·기관의 임원·간부급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 개최(연 1~2회)
 - 실무논의는 과장급 주재로 실무위원회 상시 개최(최소 분기별 1회) 하되, 개최시기·주제별로 참여기관·업체 다각화
 - * (예시) 전체분과를 공동개최·공동참여 / 분과별 각자 개최 및 분과원 개별 참석 등
 - K-UAM 로드맵에서 의결된 기관·업체로 우선 발족하고, 향후 총괄·간사기관 제안에 따라 협의체에서 의결하면 추가·제외



* 볼드체는 이번 신규추가 예정 기관

- (역할) 주체별 역할을 구분하되 추진과정에서 상호역할 조정 가능
 - (총괄) 국토부는 UAM 추진현황을 총괄 관리하고, 주요이슈별 참여기관·업체 이해관계 총괄 조정 및 법령 제·개정과 예산사업 추진
 - (간사) 협의체 소집, 참여기관·업체의 건의사항 상시 접수, 회의별 상정안건 마련 및 협의체 운영현황 관리 등
 - (참여기관) UAM 관련 추진상황 및 토의사항 공유, 기관·업체별 역할에 따라 소관과제 이행 등